

구운몽 성진과 소설가 구보, 특강에서 만나다!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 한 번에 정리하기

PART 1 소설의 이론

1. 소설이란 무엇인가?



(1) 소설의 부피를 이루는 3요소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자가 인물·사건·배경 등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해설적, 추상적, 요약적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자가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 그리듯이 전달하기 위해 오감을 환기함으로써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방법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 사이에 주고받는 말. 대개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묘사에 활용됨. 직접 화법: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 간접 화법: 큰따옴표 없이 인물의 대사를 전달하는 방법

(2) 인물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인물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간접 제시보다 서술 분량 ↓, 사건 진행 속도 ↑ <p>예)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몸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 현진건, <고향></p>
간접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행동, 대사를 통해 장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 서술자의 개입 없이 독자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 속도 ↓ <p>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현진건, <고향></p>

2. 고전 소설의 특성 vs 현대 소설의 특성

	인물의 유형	구성의 특성	서술자 - 시점*	문체
고전 소설	재자가인(才子佳人)	평면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 우연적, 전기적	전지적 작가 시점	-더라체 서술자의 개입 ↑
현대 소설	일상적 인물	입체(역행)적 구성 필연적(암시와 복선)	시점의 다변화	-이다체 서술자의 개입 ↓

<p>“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도 났을 잃어버릴 지경이거든 정한담의 혼백과 간담인들 성할쏘냐. 원수의 호통 소리에 한담의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해 댕던 말을 돌려 타고 도망가려다가 형산마가 거꾸러지면서 한담도 백사장에 떨어졌다. - 작가 미상, <유충렬전></p>	<p>“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때에 김 첨지는 대수롭지 않은듯이, “아따, 젼장맛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 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 현진건, <운수 좋은 날></p>
---	--

*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 ■ 주인공이 곧 서술자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 <p>예) 이번에도 점순이가 뺨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 김유정, <동백꽃></p>
1인칭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서술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찰한 사실을 전달하는 시점 ■ 주인공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아 긴장감을 줌. <p>예) 아, 그런데 글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맘보를 먹고 하니, 내 참 기가 막혀! - 채만식, <치숙></p>
3인칭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서술자가 사건의 외면만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시점 ■ 서술자는 대화, 행동, 장면 등만 전달함. <p>예)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세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 김동인, <감자></p>
전지적 작가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입장에서 내면 심리까지 전달하는 시점 ■ 서술자가 특정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서 사건을 전개하기도 함. <p>예)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p>

3.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차이점

(1) 서술자의 개입

이때 조 원수가 군사를 재촉하여 황성으로 향할 새 지나가는 여러 읍이 기세를 바라보고는 스스로 복종하니 늪 아니 즐거리오? 동관에 다다르니 선두에서 알려오기를 ‘승상 최식과 주변이 팔만 대군을 거느려 길을 막는다.’ 하니, 원수가 살펴보니 군대의 사기가 엄숙하여 전일 장덕과는 다르더라.

- 작가 미상, <조웅전>

무지하던 고집이 높 어느덧 허물을 뉘우치고 애통하여 하는 소리가,
“나는 죽어 썩 놈이로되, 당상학발(堂上鶴髮)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고, 어여쁜 아내 월하의 인연 맺어 일월로 다짐하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종사(百年從事)하렸더니, 독수공방(獨守空房) 적막한데 임도 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輾轉反側)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중략]”
이럴 즈음 허용가의 거동 보세. 송사에 이기고서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는 거동, 진소위 제법이 것이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 작가 미상, <웅고집전>

(2) 과거 제시 방법 - 평면 vs 입체

① 고전 소설: 이때, 한편, 차설 등

계월이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남자 못 된 것을 한스러워했다.
이때 위공이 즉시 대궐에 들어가 계월이 하던 말을 아뢰니 천자께서 기뻐하시고 즉시 여공을 불러 하교하셨다.
“평국과 보국을 부부로 정하고자 하니 경의 뜻은 어떠한고?”
여공이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의 덕택으로 어진 며느리 얻게 되었으니 감사하여 아뢴 말씀이 없나이다.”
이렇게 아뢰고 물러 나와 보국을 불러 천자의 하교를 전하니 보국이 엎드려 사례했다. 또한 부인이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이때 천자께서 태사관(太史官)을 불러 택일하니 혼인 날짜는 삼월 보름께였다.

- 작가 미상, <홍계월전>

② 고전 소설: ‘꿈’을 통한 과거 제시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 죄 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결로 함심(含心) 하야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 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덕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 하옵소서.”

- 작가 미상, <유충렬전>

③ 고전 소설: 대화를 통한 과거 제시

선군이 능히 참지 못하여 일장 통곡하다가, 급히 정당(正當)에 와서 그 곡절을 물으니 백공이 오열하여 이르되,

“너 간 지 오륙 일 된 후, 일일은 남자의 형영(形影)이 없기로 우리 부처(夫妻) 고이 여겨 제 방에 가 본즉 저 모양으로 누였음에 불승(不勝) 대경(大驚)하여 그 곡절을 알 길 없어 있어, 헤아리매 이 필연 어느 놈이 선군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가 겁탈하려다가 칼로 남자를 찔러 죽였는가 하여 칼을 빼려 하였으나, 중인(衆人)도 능히 빼지 못하고 시체를 움직일 길 없어 염습하지 못하고 그저 두어 너를 기다렸고, 네게 알게 아니함은 네 듣고 놀라 병이 날까 염려함이요, 임녀와 성혼코자 함은 내가 남자의 죽음을 알지라도 마음을 위로할까 생각하여 그러함이니, 너는 모름지기 상(像)치 말고 염습할 도리를 생각하라.”

- 작가 미상, <속명남자전>

④ 고전 소설: 서술을 통한 과거 제시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騎兵) 10여 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 조위한, <최척전>

⑤ 현대 소설: 역행적 구성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 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 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게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거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단 말이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했다.

- 이청준, <줄>

⑥ 현대 소설: 의식의 흐름 속 과거 회상

구보는 악연히 고개를 들어 뜻 없이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아아, 그제 생각해 내고 말았다. 영구히 잊고 싶다 생각한 그의 일을 왜 기억 속에서 더듬었느냐. 애달프고 또 쓰린 추억이란, 결코 사람 마음을 고요하게도 기쁘게도 하여 주는 것은 아니었다. 여자는 그가 구보와 알기 전에 이미 약혼하고 있었던 사나이의 문제를 가져, 구보의 결단을 빌었다. 불행히 그 사나이를 구보는 알고 있었다. 중학 시대의 동창생. [중략]

참지 못하고 구보는 걸기 시작한다. 사실 나는 비겁하였을지도 모른다. 한 여자의 사랑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만 옳았을지도 모른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3) 결말 처리 방식 - 상승형 vs 하강형

이로부터 왕의 복록(福祿)이 진진하고 자손이 만당하여 금선공주는 일남 일녀를 두고 금령공주는 이남 일녀를 두었으니 다 아버지를 닮아 모두가 옥인 군자(玉人君子)요 요조숙녀(窈窕淑女)더라. 장자의 이름은 몽진이니 금령공주의 소생이요, 차자의 이름은 몽환이니 금선공주의 소생이요, 삼자의 이름은 몽기니 금령공주의 소생이더라. 장자 몽진은 이부상서로 있고 차자 몽환은 병마도독으로 있으면 삼자 몽기는 한림학사에 거하여 다 벼슬에 오르더라. 여아는 명문 거족(名門巨族)에게 사위를 맞아 각각 아들 딸을 낳으니 손이 번성하고 복록이 진진하더라.

- 작가 미상, <금방울전>

이리 이르니 성진과 여덩 이고(尼姑)가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할 정과를 얻으니 대사가 성진의 계행이 높고 순속함을 보고 이제 대중을 모으고 가로되,

“내 본디 전도함을 위하여 중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정법을 전할 곳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노라.”

하고 염주와 바리와 정병(淨瓶)과 석장과 금강경 한 권을 성진을 주고 서천(西天)으로 가니라.

이후에 성진이 연화 도량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선과 용신과 사람과 귀신이 한 가지로 존숭함을 육관 대사와 같이하고, 여덩 이고가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깊이 보살 대도를 얻어 아홉 사람이 한가지로 극락세계로 가니라.

- 김만중, <구운몽>

“이년아, 죽었다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PART 2

기출 문제와 실전 문제

1. 기출 문제

1.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018 지방직 9급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별이 째짤히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푹푹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목으라고 하였지만 모레는 너두 들를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은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훌쩍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뒷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불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바삐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펍판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2.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가직 9급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델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쇠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델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푹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중략]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넨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 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 쿨리(苦力, coolie):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인도인 노동자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 [A], [B]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교육행정직 9급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언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

[A] 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빼퐁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중략]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짹 뺏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B]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배알아진 양치물은 귀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 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 좌르르.

“유 데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 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컹,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 채만식, <미스터방>

- ①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외적인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
- ② [A]는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 ③ [B]는 행동 묘사를 통해 주인공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B]는 과거 사건의 요약을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빠르게 하고 있다.

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국회직 9급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서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룻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던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별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 오상원, <유예>

- ①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되며 전체적인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 ③ 단순한 갈등이 복잡화되면서 사건 전개가 긴밀해진다.
- ④ 주인공 내면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주제 의식이 부각된다.
- ⑤ 전체적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극적 긴장감이 해소된다.

5.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법원직 9급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신빙성을 획득하고 있다.
- ④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교육행정직 9급

(가) 어디선가 계속 무덤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로소 자신을 굳힌 듯 오리나무 그늘에 서 몸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콩밭 아래로 흘러 뺨은 마을이 눈앞으로 멀리 펼쳐져 나갔다. 거기 과연 아직 초가지붕을 이고 있는 건 노인네의 그 버섯 모양의 오두막과 아랫동네의 다른 한 채가 전부였다.

(나) 바로 그 옷궤 이야기였다. 17, 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시에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 이청준, <눈길>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 ② (가)와 (나) 모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가)에는 장면 묘사가, (나)에는 사건의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이야기 밖 서술자가, (나)는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7. ㉠~㉣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9급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한때나마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임 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맛 없어 밥 못 먹고 불안한 잠자리에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접하고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 울음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쉬어 넘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임이 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아니 쉬고 달려가리. ㉢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을 사랑하는가?”

㉣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봄눈 녹듯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 작가 미상, <춘향전>

- ① ㉠
- ② ㉡
- ③ ㉢
- ④ ㉣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영은 차고 온 술병을 풀어 술을 모두 마시고는 취하여 돌을 베개 삼아 바위 한 켠에 누웠다. 얼마 뒤 술이 깨어 눈을 들어 보니 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었다. 산은 달을 토하고 안개는 벼들잎을 감싸고 바람은 꽃잎에 살랑 불었다. 그때 한 줄기 가녀린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유영이 이상하게 여겨 일어나 보니 소년 한 사람이 젊은 미인과 정답게 마주 앉아 있었다.

[중략]

김 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 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 대군이 몰락하여 궁궐에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게다가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화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돌의 꽃과 트랙의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그대로이거늘 사람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유영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두 천상에 계신 분들인가요?”

김 진사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청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 사사로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 이제는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청궁(三淸宮)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회오리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중략]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 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서글프고 하릴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영은 책을 상자 속에 간직해 두고 때때로 열어 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작가 미상, <운영전>

8.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교육행정직 7급

- ① 상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천상계와 현실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꿈을 깬 후 보이는 유영의 행동에는 작가 의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두 사람의 과거를 김 진사가 직접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 실제감을 높여 주고 있다.
- ④ 유영이 꿈속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났다가 꿈을 깨는 몽유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9. ㉠~㉣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2017 교육행정직 7급

-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교육행정직 7급

때는 경신년이었다. 옥영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지름길을 따라 대엿새 만에 남원에 이르렀다. 마을에 쳐들어온 왜적에게 집이 불타 없어졌으니 마을이 많이 변했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난리 통에 떠났던 옛집을 찾아보려고 만복사를 찾아 나섰다. 금교(金橋)에 이르러 성곽을 바라보니 옛날이나 다름이 없었다. 옥영은 아들을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집이 바로 너의 아버님의 옛집이란다. 지금은 누가 들어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나, 찾아가 하룻밤 신세 지면서 자세히 물어보자꾸나.”

어느덧 옛집 앞에 당도했다. 최척은 버드나무 밑에서 사람들과 담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옥영이 그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남편이었다. 모자와 며느리가 일시에 달려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다. 최척도 곧 알아보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몽석 어머니 돌아오다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몽석은 이 말을 듣고 달려 나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온 가족이 상봉하는 그 광경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서로 붙들고 늘어지며 방으로 들어갔다. 심 씨는 병이 깊어 정신이 없다가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기절했다. 옥영이 끌어안고 갖은 정성을 다하니 얼마 후에 깨어났다. 최척은 흥도의 아버지인 진공(陳公)을 불러,

“오늘에야 온 가족이 상봉을 하는구려.”

하면서 흥도를 불러 인사시켰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봉했으니, 고금 천하에 다시 이와 같이 신기하고 극적인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소문은 일시에 사방으로 퍼졌다.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더구나 험한 난관을 뚫고 나온 옥영과 흥도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무릎을 치며 찬탄해 마지않았다. 다투어 가며 그런 이야기를 이웃과 이웃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옥영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은덕이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만복사가 황폐해지고 부처도 파괴되어 없어져서 의지하고 불공을 드릴 곳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냥 앉아만 있으리까?”

- 조위한, <최척전>

- 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어 갈등 해소의 방향을 암시한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 준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실전 문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 하지만 꾸어 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디다.”
 상훈이는 불끈하여 소리를 높여서 또 무슨 말을 이으려다가 마루 끝에서 영감님의 기침 소리가 나는 바람에 좌우 방 안은 괴괴하여졌다.
 “왜들 떠드니?”
 화를 참는 못마땅한 강강한 목소리와 함께 건넌방 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의 젊은 애들은 우중우중 일어서며 아랫목에 앉았던 상훈이는 윗목으로 내려섰다. [중략]

[A] 사천 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들인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벌써 해 놓은 일에 대하여 자식부터라도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 이래저래 화는 더 나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 못마땅한 자식이요, 또 오늘은 친기라 제사 반대군을 보니 가만 있어도 무슨 야단이든지 날 줄은 누구나 짐작했지만 마침 거리가 좋아서 야단이 호되게 된 것이다.
 “아니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아저씨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외다.”
 창훈이는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사치레로 한 마디 하였다.
 “잘못 듣다니? 내가 이롱증이 있단 말인가?”
 “그만 해 두세요. 상훈 군도 달래 그럴겠습니까? 이 전향한 통에 꿈쩍하면 돈이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창훈이는 이렇게도 변명해 주었다. 그러나 상훈이로서는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미웠다.

(나)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 모녀와는 공교히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 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달아서 경애 모녀의 코빼기라도 못 보았건마는 소문을 뻘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그러나 상훈이 내외끼리 몇 번 싸움질이 있던 외에는 노 영감님도 이때껏 눈감아 버린 것이요, 경애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좌중(稠人廣座中)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헛김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적이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아버님께서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 데…….”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 염상섭, <삼대>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개인 간의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 ② 인물의 대사를 통해 1930년대의 시대 상황이 드러난다.
- ③ 말하기와 보여주기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긍정적 인물을 통해 당시의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A], [B]는 서로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간접 제시 방법으로, [B]는 직접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姑母夫) 그 양반……. ㉠ 똘, 말두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썽…… 내 원!

신세 간 데 없지요.

자, ㉡ 십 년 적공(積功),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 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身分)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 가지 굴량은 굴 속 같은 오두막집 단간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 서발 막대 내저어야 짚검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鐵貧)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암전해서 그 ㉣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샅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장사야, 그 칩살스런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요. 어디루 대나 그 양반은 죽는 게 두루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해요.

- 채만식, <치숙>

3. 이 글의 시점과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1인칭 화자가 주인공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ㄴ. 신뢰성 없는 서술자가 판소리 사설과 같은 독백체를 사용하고 있다.

ㄷ.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ㄹ. 독자에게 말하듯이 서술하고 있으며 동의를 구하는 듯한 어투가 종종 나타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인물의 내력과 삶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과 뜻이 통하는 한자 성어는 ‘三旬九食’이다.
- ④ ㉣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뜻과 숨겨진 뜻이 상반된 표현이다.

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부분의 줄거리]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만도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아들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한다.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시냇물인 것이다. [중략]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하는 것이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찌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꽁!’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하였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인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타고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퐁이다, 퐁.’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껴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왔을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 하근찬, <수난이대>

- ① 주로 간접적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의미를 지닌 대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 ④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인물의 의지로 극복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6.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춘자 아버지두,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뺨쓰를 은으러 왔단 말유? 희치희치허구 낡음낡음헌 흔 뺨쓰를……뺨쓰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주게 생긴 걸레를 은으러 예까장 펄렁그리구 왔때 유? 세상에 원…….”
미루어 보건대 이재민 구호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츠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김은 구경만 하고 있잠도 아니요, 그렇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사내 여편네가 남남끼리 허필 팬츠를 놓고 가가거겨 하는 옆에서 옆들이 하잠도 아닌 듯하여 부찌지 못하고 있었다. 황이 말했다.
“챙근 엄니는……말을 귀루 안 듣구 입으로 들유? 수재민이라구 훗것만 입으라는 뺨이 워디 있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끄니래두 끓이라구 추렴해 준 양석 팔어 뺨쓰버텀 사 입으야 쓰겄수? 게, 다 나두 생각이 있어 내논 켄디 뎁세 나를 트집혈류? 말에 도장 읏다구 함부로 입방아 찧지 마유. 이게 왜 흔계유. 남대문 표는 삼 년을 입어두 새물내만 납디다유. 공중 넘우세스럽게끔 이유 삼지 말구 얼릉 판디나 가 보유.”
“…….” /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 말 밑을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에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말했다.

“아따나 찡근 엄니두 예지간허슈. 애초 저기헌 사람허구 저기했으야 말이지…… 야중에 저기허는 수 있 으니까 그냥 주는 대루 받아 나오슈. 이려다가는 일 품 메구 해넘이 허겼슈.”

그 말을 계제 삼아 찡근 어매가 말했다.

“남답문이구 앞답문이구 간에 수재민 고쟁이 걱정허는 사람은 팔도강산에 느티울 춘자 아버지뿐일규. 확실히 우리게는 꽃동네 새 동네여.”

-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 ① 찡근 엄마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견으러 황의 집에 들렀다.
- ② 황은 물건의 상표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③ 김은 찡근 엄마의 지나친 말 때문에 싸움에 끼어들어 황을 두둔하고 있다.
- ④ 찡근 엄마는 속마음과는 상반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황을 비난하고 있다.

7.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제저녁,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밀국수를 끓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 어린 손짓으로 누이의 어깨를 쓰다듬 으며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어떤 곤란을 겪었던가, 무엇이 재미있었던가, 남자를 사귀었던가, 그렇 다면 어떤 남자였던가, 고 얘기해 주기를 간청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짐작건대 누이의 쓰라린 추억을 불 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누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유 등잔불의 펄럭이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쓸쓸해 보이게 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누이는 말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새삼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라고 누이는 말하고 싶었던 거다. 하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 고 그리고 다음 날은 희생자들이 작은 조각에 몸을 기대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것이다.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 가는 이 시각에 내게는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 주는 자연 속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 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2년 동안을 찢어 버리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신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 시키고 싶었다. 숲속의 짐승들이 감각만으로써 살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인간이 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는 누이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 ①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판단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 ② 한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심리를 추측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 인물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백여 명의 장정들이 백주에 꿩이며 삼 몽둥이들을 들고 몰이꾼처럼 몰려왔다. 어느 얼굴을 보나 인간 백정이다!

5십 명 남짓한 음성 나환자들은 우선 손에 쥘 것 없이 그들의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부락민들은 천막을 죽 에워쌌다. 구장인지 뭔지 얼굴이 넓적하고 입이 메기처럼 커다란 사람이 겁에 질려 있는 듯한 음성 환자들을 보고 명령을 하듯 했다.

“여러 말 할 것도 들을 것도 없으니 곧 이곳을 떠나시오!”

목소리도 입따라 우렁찼다.

경기까투리가 일동을 대표해서 따지려 들었다. 그러나 그는 두 마디도 못하고 구장인 듯한 사내의 발길에 채어 넘어졌다.

환자들은 우쭐하려다 말고 천막 안을 돌아보았다.

흰 수염을 덜덜 떨며 우중신 노인이 예의 긴 지팡이를 짚고 경기까투리가 섰던 자리에 나타났다.

“자네 말마따나 여러 말 할 것 없네. 우릴 적이라. 우선 나부터!”

우중신 노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확 찢으며 뼈만 남은 가슴을 쑥 내밀었다.

그러나 구장개나 해먹을 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 메기아가리에겐 그까짓 거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원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

“자네-? 이 자식이 머 이런 기 있노!”

메기아가리의 넓적한 손바닥이 우 노인의 얼굴을 몰강스럽게 냅다 갈겼다.

쓰러질 듯하다가 일어나는 우 노인의 수염에 피가 벌겍게 흘러내렸다. 우 노인의 지팡이가 상대방의 아랫배 짬을 지르자 미처 달기도 전에 또 한 부락민의 꿩이가 느닷없이 우 노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음향과 함께 쓰러진 우 노인의 눈은 금방 하얗게 뒤집혀졌다. 거의 순간적인 일이었다.

- 김정한, <인간단지>

- ① 음성 나환자들은 부락민들과 달리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항하고 있다.
- ②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자 하는 우 노인의 의지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부락민은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해 우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 ④ 음성 나환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背馳)되는 듯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별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맨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 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중략]

“흥,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르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

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더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릿집 이름이려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 ①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사용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대상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이해가 달라 갈등을 겪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계월은 다섯 살 때 부모와 헤어지고 여공에 의해 구조된다. 평국으로 이름을 바꾼 계월은 남장을 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성장하여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헤어졌던 부모와 상봉한다. 이후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나 천자에게 용서를 받고 천자의 주선으로 계월은 보국과 혼인을 한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복지를 항복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중략]

이튿날, 원수 중군에게 분부하되,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워라.”

하니 중군이 칭령하고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 가리켜 외치길,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라, 대원수의 영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히라 하니 바빠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대통하여 말을 몰아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이 빛나며 머리 마하에 떨어지니 적장 운경이 운평 죽음을 보고 대분하여 말을 몰아 달려들거늘, 보국이 승기 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의 칼 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든 채 마하에 나려지거늘,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직으로 돌아오던 중, 적장 구덕지 대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하며 달려올새,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이 황겁하여 대하고자 하더니 경각에 적장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겁 에워싸는지라. 사세 위급하매 보국이 양천탄식하더라. 이때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죄충우돌하며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해 낸 후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새, 동에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하더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 보국을 꾸짖어 왈,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 작가 미상, <홍계월전>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 간의 갈등과 집단 간의 갈등이 모두 드러나 있다.

ㄴ. 작중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

ㄷ. 전쟁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ㄹ.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비범함을 강조하고 있다.

ㅁ.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ㅁ

③ ㄴ, ㅁ

④ ㄷ, ㄹ

11.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의 패배 이후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비범한 주인공의 활약과 승리를 다룬 영웅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더해져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으로 ‘고난 - 위기 -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계월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된다.

① 계월은 어린 시절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인 여공에게 구원을 받고 입신양명하게 되는군.

② 영웅적 능력을 지닌 계월이 여성임이 밝혀지자 국가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③ 오나라와 초나라의 반란으로 계월은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군.

④ 가부장적 사회 질서 아래 억압받던 당시 여성들의 바람이 보국을 구해내고 적군을 단번에 물리치는 계월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군.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육경(六經)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의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중략]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모)를 두 다리 사이로 쭈서 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길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달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통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아뢰었다.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誨)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本性)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가 떠드는 천 소리 만 소리는 오륜(五倫)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四綱)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도회지에 코 베이고, 발꿈치 찢리고, 얼굴에다 자자(刺字)질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刑具)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시시키지 못하는구나.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느냐?”

- 박지원, <호질>

1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희화화와 우의적 수법이 나타나 있다.
- ②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조선 후기의 혼탁한 양반 사회를 비판하면서 유교 이념을 회복하자는 작가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3.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격화된 대상을 풍자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대조의 방식으로 인간의 부정적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니 ㉠ 홀연(忽然) 석양(夕陽)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고이히 여겨 생각하
 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지 하더니, 한 호승(胡僧)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엄연(儼然)
 히 좌상(座上)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慌忙)히 답례 왈,
 “사부(師傅)는 어디로서 오신고?”
 호승이 소 왈(笑曰)
 “평생 고인(故人)을 몰라 보시니 귀인(貴人)이 잇음 혈탄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보니, 한 화상(和尚)
 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經)을 강론(講論)하더니 노부가 노화상(老和尚)이냐?”
 호승이 박장대소(拍掌大笑)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 몽중(夢中)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동처(同處)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 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茫然)하여 가로되,
 “소유, ㉣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座下)를 떠나지 아녘고, 십육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
 으로 연국(燕國)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밝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相從)하였으리요?”
 호승이 소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 김만중, <구운몽>

14.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성진이 꿈속에서 꾸는 꿈을 뜻한다.
 ② ㉢은 성진이 육관대사 밑에서 불도를 닦았던 일을 뜻한다.
 ③ ㉡은 시간 순서로 보면 ㉢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④ ㉢은 양소유가 어렸을 때 호승의 제자였던 일을 뜻한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청춘이 아깝구나. 하나 하늘의 뜻이니, 너의 혼백이라도 나를 원망치 마라.”
 호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성은 심상치 않아 뒤를 돌아보니, 큰불이 바람을 타고 자신에게로 덮쳐 왔다. [중략]
 “명나라 대장 소대성이 천자를 위해 반적을 소멸하여 사직을 받들고자 했는데, 조물주가 이를 시기하여 자운동의 귀신이 될 지경이옵니다. 부디 하늘은 굽어 살피소서.”
 대성은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한데 갑자기 남쪽의 산 위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급히 올라오라.”
 대성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산 위로 오르며 뒤를 돌아보니, 불이 자신이 있던 곳을 덮쳤다. 말에서 내려 노인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다.
 “저의 잔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노인이 홍선(紅扇)을 꺼내어서 불을 향해 부쳤다. 불이 대성과 노인이 있는 자리로는 덮치지 않았다. 대성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노翁의 거처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의 남천문 밖에 있는 화덕진군이로다. 어제 석가여래께서 ‘명나라 대장 소대성이 내일 오시(午時)에 자운동 화재를 만날 것이니 구하라.’ 하시어 왔도다. 만일 내 조금이라도 더디 왔던들, 세존의 부탁이 허사가 될 뻔했도다. 본디 장수가 적군을 너무 가벼이 보면 화를 입는 법인데, 호왕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로다.”
 “호왕이 범상치 않은 인물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변신술을 이렇게까지 부릴 수 있는 줄은 몰랐나이다.”
 “호왕은 천상의 나타 제자다. 그에게서 술법을 십 년 동안 배웠으니 어찌 변신술을 모르겠는가?”
 - 작가 미상, <소대성전>

- 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전기적 요소가 사건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의 출현으로 인물간의 대립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④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교차하여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집은 윗목에 놓여 있는 피나무 궤를 열고 말하였다.
 “이곳으로 어서 들어가시오.”
 궤 속으로 들어간 배 비장은 몸을 웅송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기가 믿고 데리고 있는 방자의 계교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인가.
 계집이 궤 문을 닫고 쇠를 덜커덕 채우니 이제는 함정에 든 범이요, 독 안에 든 쥐였다. 배 비장은 숨이 가빠져 왔다. [중략]
 사내는 궤짝을 져다가 사또가 있는 동헌 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는 듯이 말하며 궤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다.
 “궤 속 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 테니 천 리 길을 떠나거라.”
 배 비장은 생각하였다.
 ‘어허 궤가 벌써 물에 떴나 보구나. 이젠 죽었구나.’ [중략]

“궤 속에서 나는 그 소리가 이상하다. 우리 배에 부정 탈라! 상앗대로 떠밀자.”
 “난 사람이니 부디 살려 주오.”
 “어디 사는 사람이냐?”
 “제주 사오.”
 “제주라는 곳이 미색의 땅이라, 분명 유부녀 통간 갔다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예, 옳소이다.”
 “우리 배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궤 문이나 열어 줄 테니 혜엄을 쳐서 가거라. 그런데 이 물은 짠 물이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 눈을 감고 가라.”
 사공이 쇠를 덜커덕 열어 놓자, 배 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서 두 눈을 잔뜩 감고 이를 악물고 와락 두 손을 짚으면서 허우적거렸다.
 한참을 이 모양으로 혜엄쳐 가다가 동헌 댕돌에다가 대가리를 부딪치자 배 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번쩍 떴다. 자세히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가 앉고 전후좌우에 관속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 작가 미상, <배비장전>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계집과 사내에게 속아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 ③ 사공은 배 비장의 행위를 비난하며 그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중에 개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하고 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심생)는 행인이 끊어지기를 기다려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때 초승달이 으스스한데 창밖으로 꽃나무가 썩 아담하게 가꾸어졌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치어 아주 환했다. 심생은 처마 밑 바깥벽에 기대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 방 안에 두 매향과 함께 그 처녀가 있었다. [중략]
 스무날 째 되는 밤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마루로부터 내려와 바깥벽을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처소에 당도하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끈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 변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 저는 이미 스무 날 전부터 도련님이 다니시는 줄 알았답니다. 저를 붙들지 마세요. 한번 소리를 내면 다시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절 놓아주시면 제가 뒷문을 열고 방으로 드시게 할게요. 얼른 놓으세요.”
 심생은 곧이듣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핵 돌아서 들어가 버렸다. 방에 들어가서는 계집애를 부르더니, / ㉡ “너 엄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주시라고 하여 갖고 오너라. 밤이 깜깜해서 사람을 겁나게 하는구나.”
 계집애가 옷방 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다. 그녀는 열어 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아귀진 쇠꼬챙이를 분명히 꽂고 다시 손으로 자물쇠를 채웠다. 일부러 쇠를 채우는 소리를 찰카닥 내었다. 그리고 곧 등불을 끄고 고요히 잠이 깊이 든 듯하였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심생은 속임을 당하여 분통이 났다. 한편 생각하면 그나마 만나 본 것만도 다행이다 싶었다. 여전히 쇠를 채운 방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 그는 다음 날에 또 가고, 다음 날에도 갔다. [중략]
 “도련님, 들어오세요.” / 심생은 얼떨떨하여 자기도 모르게 몸이 벌써 방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 문에 쇠를 채우고 심생에게 말했다.

“[중략] 제 몸은 한낱 중인 집 딸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절세의 경성지색(傾城之色)으로 물고기가 숨고 꽃이 부끄러워할 만한 용모를 지닌 것도 아닌데, 도련님께서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지성을 바치되 이토록 부지런히 하오십니다. 제가 만일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제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중략]”

그래서 그날부터 심생은 밤마다 여인을 만났다. 애타게 사모하던 끝에 그 기쁨이야 오죽하였으리오. 그날 밤 이후로 심생은 저물녘에 집에서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중략] ㉡그러나 심생이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집에서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이 내리었다.

- 이옥, <심생전>

- ① ㉠: 심생에게 붙잡혔을 때 처녀가 놀라는 기색이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처녀가 심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처녀가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 찾아왔던 심생의 정성에 감복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심생이 집에서는 처녀와의 만남을 숨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둬 만났을 때는 정이 백 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백 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론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義理)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하나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다만 애끓는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幻身)이 이승에 되 돌아왔습니다. 낭군과 저와는 삼세(三世)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뵈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낭군께서 지금도 삼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낭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김시습, <이생규장전>

- ① 이생과 여인은 외부의 영향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 ② 이생은 여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비이성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이생과 여인은 모두 혼인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했다.
- ④ 여인은 유교적 도덕관념보다 사랑을 중시하여 환신으로 이생을 찾아왔다.

20.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그 후로는 ㉠ 공이 길동을 산에 있는 정자에 머물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감시했다. 길동은 이런 일을 당하자 설움이 더욱 북받쳤지만 어쩔 수가 없어 육도삼략이라는 병법과 천문 지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공이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근심하여 말했다.

“이놈이 본래 재주가 있으니, 만일 과분한 마음을 품게 되면 관상녀의 말과 같을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라?”

이때 ㉡ 초란이 무녀 및 관상녀와 내통하여 공을 놀라게 하고는 길동을 없애고자 거금을 들여 자객을 매수했는데, 그 이름은 특재였다. 초란은 특재에게 전후 내막을 자세히 일러 주고는 공에게 가서 아뢰었다.

“㉢ 며칠 관상녀가 아는 일이 귀신 같으니, 길동의 앞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저도 놀랍고 두려우니 일찍 길동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나을 듯하옵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면서,

“이 일은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고 물리치기는 했으나, 마음이 자연 산란하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병이 나고 말았다.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초란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아뢰었다.

“㉣ 상공의 병환이 위중하심은 길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애면 상공의 병환도 완쾌되실 뿐 아니라, 가문도 보존할 것이온데, 어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부인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다 한들 천륜이 지중한데 차마 어찌 그런 짓을 하겠나.” / 고 하자, 초란이 말했다.

“듣자오니 특재라는 자객이 있는데, 사람 죽이기를 주머니 속의 물건 잡듯이 한답니다. 그에게 거금을 주고 밤에 들어가 해치게 하면, 상공이 아셔도 어쩔 수 없을 것이오니, 부인은 재삼 생각하십시오.”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는 차마 못할 바이로되,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며, 셋째는 흥씨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너의 생각대로 하려무나.”

그러자 초란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특재를 불러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급히 행하라 하니, ㉣ 특재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밤들기를 기다렸다.

- 허균, <홍길동전>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